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원과 주거에 대한 인식 조사

2023. 12. 27.

이정원 연구원

CONTENTS

I. 임박한 은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II. 은퇴 후 소득과 주거에 대한 인식

1. 코앞의 퇴직,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2. 적게 받아도 재취업이 꿈
3. 필요한 건 금융자산, 가진 건 부동산
4. 주택을 노후소득원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

III.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 2차 베이비부머(1968~74년 출생) 직장인 대부분은 5~10년 내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현실적인 노후 준비와 은퇴생활에 대한 기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써 생활비 부족(42.6%), 가족 의료·간병비(14.0%),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10.1%) 등을 예상하고 있으나 자산 증식 또는 은퇴 후 소득활동을 준비 중인 사람은 절반가량(52.7%)에 그침.
- 대부분의 응답자가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을 이어가기를 희망(83.6%)했으며 주로 재취업(70.8%)을 통한 소득 활동을 예상했으나 대체로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64.0%)한 것으로 나타남.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대체로 은퇴생활에서 금융자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로 보유한 자산은 실물자산(82.8%) 위주이며, 은퇴자산이 충분히 준비되었다(13.3%)는 비율은 매우 낮음.
- 자가주택은 은퇴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근거지로 여겨며 주거에서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노후소득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4.4%)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노후 적정 생활비 확보를 위해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은퇴 시점까지 소득활동 지속을 위한 자기계발 활동, 퇴직연금 운용 및 개인연금 납입을 통한 금융자산 축적, 주택 다운사이징 또는 주택연금 활용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실물자산을 은퇴 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함.



I. 임박한 은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 2차 베이비부머(1968년~1974년 출생) 세대가 50대로 진입하면서 은퇴 이후 소득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베이비부머는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통상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를 1차 베이비부머(약 722만명, 2021년 기준),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자를 2차 베이비부머(약 615만명, 2021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법에서 정한 정년(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도 노후준비 기간이 5~10년 남짓 남은 상태임. 하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정년보다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준비를 할 기간이 더 짧게 남아 있을 수 있음.

* '주된 일자리'란 근로기간 중 가장 소득이 높고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를 의미함.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더라도 소득은 이전 직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생애주기 수지 적자'를 경험하기도 함.

(미래에셋투자증권리포트 No.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참고)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3층 연금 제도를 활용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적절한 노후생활비 확보를 위해 추가 소득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차 베이비부머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재직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 도입이 완료됨. 따라서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은 3층 연금 제도를 활용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연금 도입 : 국민연금 1988년, (구)개인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1년, 퇴직연금 2005년

- 3층 연금이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3층연금만으로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03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324만 원으로 노령연금 수령액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임.

·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과 주택 등 실물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확보해 나가야 함.



-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는 정년을 앞두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은퇴 후 소득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특히 이번 설문을 통해 2차 베이비부머의 재취업과 주거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베이비부머(만 50~56세) 직장인 2,000명 - 서울 및 경기도, 6개 광역시, 세종시 거주자 ※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나이는 만 49~55세이지만, 은퇴후보자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사 나이는 만 50~56세로 조정함.
조사 기간	- 2023년 6월 28일 ~ 2023년 8월 7일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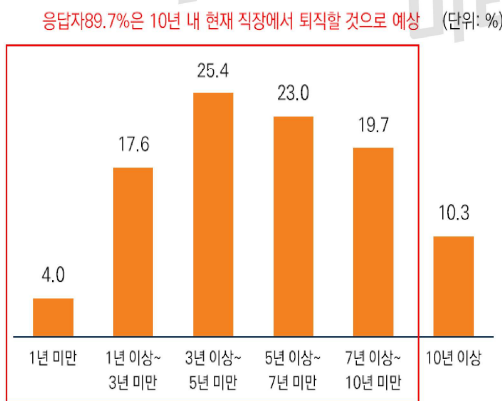
II. 퇴직 이후 삶과 소득에 대한 인식

1. 코앞의 퇴직,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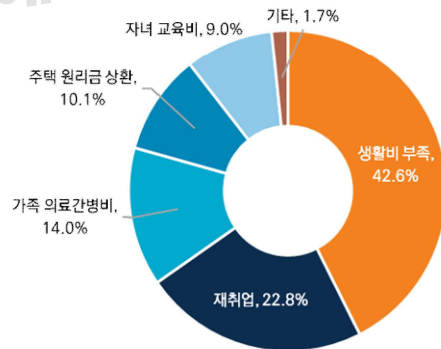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중 절반가량(47.0%)이 향후 5년 이내에 직장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퇴직 이후에는 생활비 부족(42.6%)을 걱정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음.

- 설문 응답자 중 절반(47.0%)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5년 이내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음. 반면 응답자 10명 중 1명(10.5%)만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생활비 부족(42.6%)을 걱정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 순서로는 재취업의 어려움(22.8%), 가족 의료비와 간병비(14.0%), 주택구입 원리금 상환(10.1%), 자녀교육비(9.0%) 등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었음.

〈도표1〉 예상 퇴직 시기



〈도표2〉 퇴직후 가장 걱정되는 것



◎ 은퇴 생활에 대비해 재무적으로는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고 답한 이들(26.9%)이 많았고, 다음으로 취미와 여가 활동을 구상하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자(19.4%)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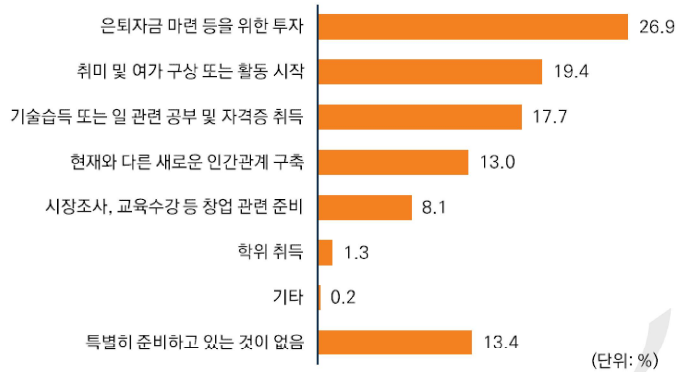
- 재무적으로는 ‘은퇴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 습득 또는 일과 관련한 공부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



답자도 17.7% 있었음. 이 밖에 시장조사 등 창업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8.1% 있었음.

-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비재무적으로는 ‘취미와 여가 활동을 구상하거나 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19.4%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다른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13.0%나 됨. 이밖에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다’는 이들도 13.4% 있었음.

〈도표 3〉 은퇴 생활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2. 적게 받아도 재취업이 꿈

- 대부분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으며, ‘더 이상 일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7.5%에 불과함. 소득 활동을 계속하려는 이유로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1.5%로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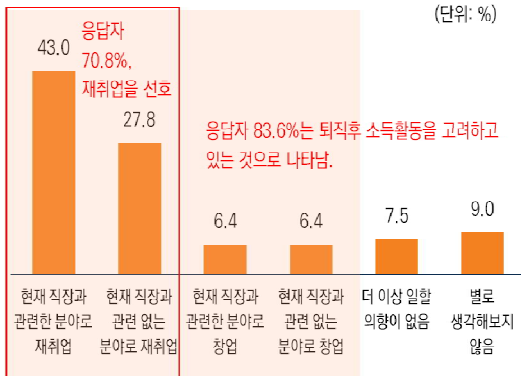
- 퇴직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답한 이들(61.5%)이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8.4%)이나 ‘자녀 결혼자금 마련’(4.7%)과 같은 재무적인 이유로 일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음.
- 하지만 ‘사회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10.8%), ‘일 자체에 대한 성취감을 위해’(6.3%)와 같이 비재무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

- 현 직장을 퇴직한 다음 예상하는 소득활동으로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0.8%나 됐고,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2.8%에 불과함.

-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과 관련 있는 분야로 재취업하겠다는 응답(43.0%)이 관련 없는 분야로 재취업하겠다는 응답(27.8%)보다 높게 나타남.
- 창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과 관련 있는 분야로 창업하겠다는 응답(6.4%)과 관련 없는 분야로 창업하겠다는 응답(6.4%)이 같은 비율로 나타남.



〈도표 4〉 퇴직후 예상하는 소득 활동



〈도표 5〉 퇴직후 소득활동을 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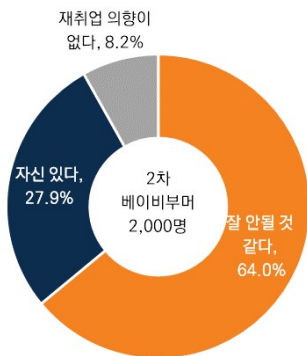


주 :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2,000명 중 퇴직 후 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자를 제외한 결과(1,8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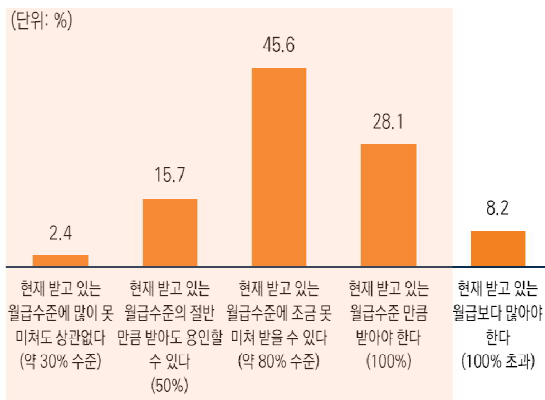
◎ 퇴직후 재취업을 해서 소득을 이어나가기를 바라지만, 재취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응답자는 27.9%에 불과함. 재취업 후 소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3.7%가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함.

- 퇴직후 재취업할 자산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셋 중 둘에 해당하는 64.0%가 '재취업이 잘 안될 것 같다'고 답했고, '자신 있다'는 답변 비율 27.9%에 불과했음.
- 재취업 이후 급여와 관련해 응답자 중 45.6%가 현 직장 급여의 80% 수준이면 감내할 수 있다고 함. 이 밖에 현재 급여의 절반만 받아도 용인할 수 있다고 답변이 15.7%, 현재 급여의 30% 수준에 못 미쳐도 상관없다는 답변도 2.4% 있었음.
- 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이들도 28.1%나 됐고,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답한 이들도 8.2%나 됐음.

〈도표 6〉 퇴직 후 재취업 자신감



〈도표 7〉 재취업시 감내 가능한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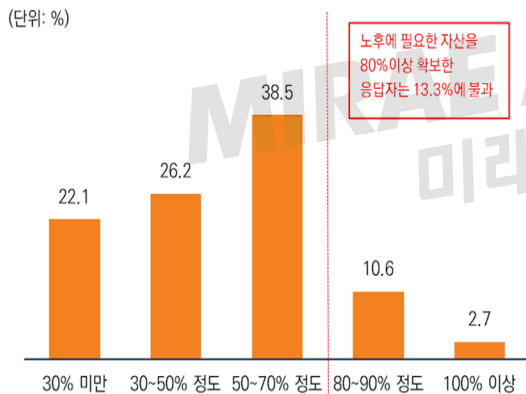
주 :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2,000명 중 퇴직 후 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자를 제외한 결과(1,850명)



3. 필요한 건 금융자산, 가진 건 부동산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응답자들 중 은퇴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80% 이상 준비했다고 답한 이들은 13.3%에 불과했음. 반면 응답자 중 절반(48.3%)은 필요한 은퇴자산의 절반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함.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은 은퇴생활을 하는데 있어 금융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 불과하다고 응답함. 나머지 82.8%는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고 있음.
 - 보유자산에서 자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 수익형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남. 둘을 합치면 보유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3%나 됨.
 - 예적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17.2%로 은퇴생활에서 금융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실제 보유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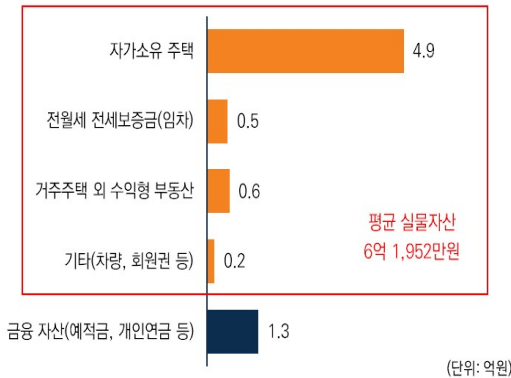
〈도표 8〉 은퇴자산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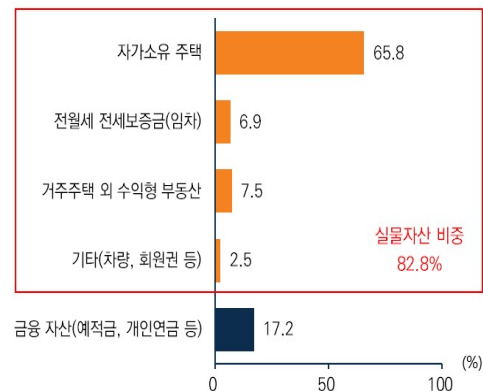
〈도표 9〉 은퇴 생활에 중요한 자산



〈도표 10〉 자산 유형별 평균 보유액



〈도표 11〉 자산 유형별 구성비



4. 주택을 노후소득원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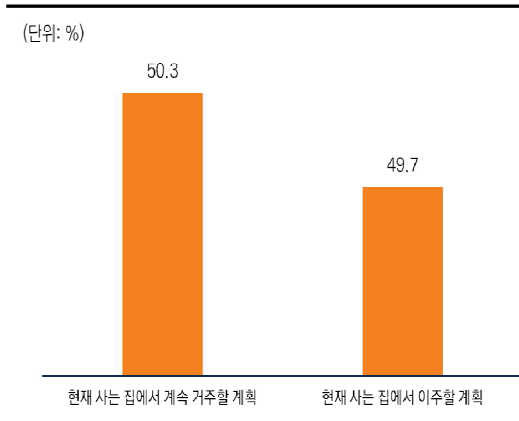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은퇴자에게 있어 거주주택은 생활 근거지인 동시에 은퇴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기도 함.

- 설문에 응한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보유자산 중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5.8%에 이르고 있어서 은퇴 후 거주지역을 이전하거나 주택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후소득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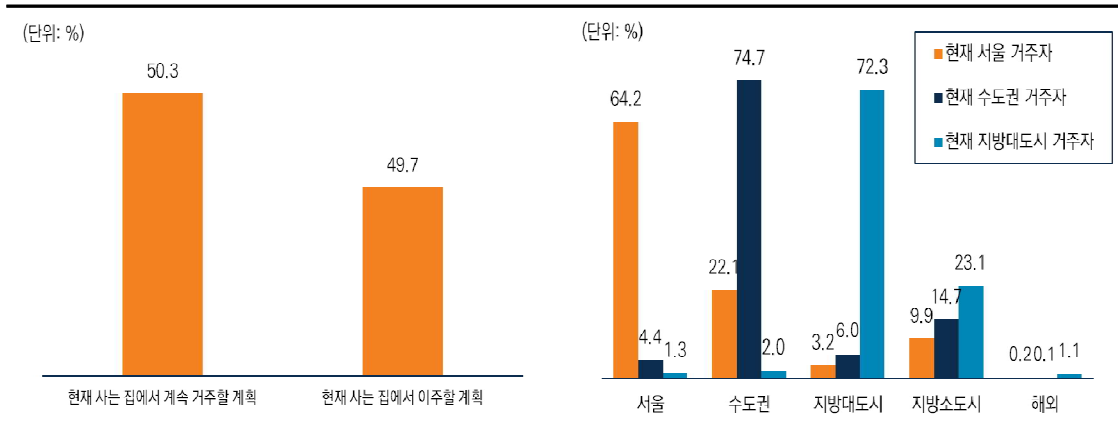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의 절반(49.7%)이 은퇴 후 현재 사는 집에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현재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주하기를 희망함.

- 은퇴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3%는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고, 49.7%가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함.
- 거주 지역별로 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64.2%는 은퇴 후에도 계속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함. 서울 거주자 중에서 수도권(경기, 인천)으로 이주를 희망한 비율은 22.1%, 지방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음.
- 지방대도시(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거주자 중 72.3%가 은퇴 후에도 계속 지방 대도시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했으며, 지방소도시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23.1%에 이르렀음. 반면 서울(1.3%)이나 수도권(2.0%)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자는 매우 적었음

〈도표 12〉 은퇴 후 이주계획 여부



〈도표 13〉 현재 거주지별 은퇴 후 희망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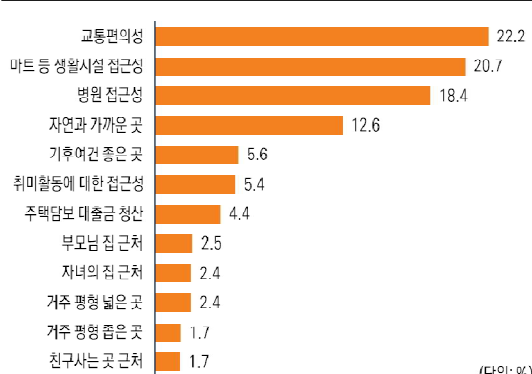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이 은퇴 후 주거지를 정할 때 교통 편의성과 생활시설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부모와 친구집 근처에 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 교통편의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 생활시설(마트 등) 접근성 20.7%, 병원 접근성 18.4%, 자연과 가까운 곳 12.6%로 나타남. 반면 주거지를 정하는 데 있어 부모님 집 근처(2.5%), 자녀 집 근처(2.4%), 친구 집 근처(1.7%) 등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주거지를 이전하는데 있어 주택담보대출금 청산(4.4%)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이 거주주택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 보다는 생활의 근거지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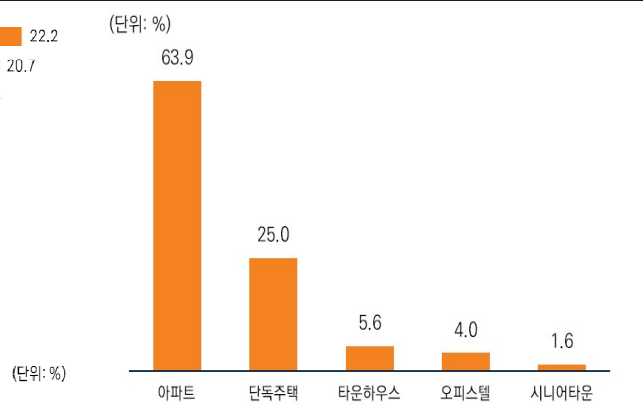
◎ 생활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희망하는 거주형태에도 반영돼 은퇴 후 아파트에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중 63.9%가 은퇴 후 아파트 거주를 희망했고,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한 응답자도 25.0% 였음. 하지만 타운하우스(5.6%), 오피스텔(4.0%), 시니어타운(1.6%)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자는 매우 적었음.

〈도표 14〉 은퇴 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도표 15〉 은퇴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Ⅲ.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직장에서 5~10년 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지만 노후 적정 생활비 확보를 위해 추가 소득원이 필요함.
-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의 은퇴 후 소득원 및 주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직장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나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했음.
- 또한 은퇴 생활의 소득원이 되는 자산과 관련해 금융자산으로 은퇴생활 영위하기를 희망하나 실제 보유한 자산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이 은퇴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함.
- 주거 관련해서는 자가주택이 은퇴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은퇴 후 소득원으로 생각하기 보다 생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대부분의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이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부터 은퇴 시점까지 노후 소득원 확보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은퇴 시점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현금 유입을 확보하기 위해 일 관련 공부 및 시장조사 등 자기계발 활동을 통해서 은퇴 후 소득확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퇴직연금 운용 및 개인연금 납입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축적함으로써 추가적인 은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택 다운사이징 또는 주택연금 활용 등 실물자산을 은퇴 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 1주택자가 기존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에서 저가주택으로 이동하면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함.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53]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 2021.12
- [54]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 2022.3
-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 [58]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11
- [59]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11
- [60]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23.2
- [61]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2023.6
- [62]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2023.11
- [63]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2023.12
- [64]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 2023.12

투자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